광주 29일부터 국제공항 격상

광주공항이 오는 6월 29일부터 국제공항으로 격상돼 광주~서울~방콕(태국)간 대한항공 정기노선이 개설되었다. 또 7월7일부터 광주~부산~오사카(일본)노선이 개설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광주발착 국제정기노선 개설을 추진하여오다 국제선 취항에 필수적인 세관, 출입국, 검역 서비스 등의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해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게 됐다고 6월 24일 발표했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6월부터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 전세기를 운항했으나 정기 국제노선이 개설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서울~방콕간 대한항공 노선은 주 2회로, 화-목요일에 출발해 월-토요일에 광주에 도착하며 기종은 A300이다.

또 광주~부산~오사카 아시아나항공 노선도 주2회로, 금-일요일에 출발해 금-일요일에 광주에 도착하며 기종은 B767-300이다.

국제정기노선 개설에 따라 서울~광주간 국내선이 주2회 증편되며, 서울~부산 국내선은 2편이 줄어든다.

김해공항-통영 관광헬기 10월 운항

경남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항공관광 코스를 개발, 오는 10월부터 관광헬기를 운항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과 통영시를 잇는 관광헬기 운항노선을 개발해 미국산 벨412기 10인승 헬기를 1일 4회 왕복운항키로 했다.

김해-통영간 헬기 운항 소요시간은 20분으로 차량운행 보다 2시간 10분이나 단축돼 이 관광헬기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헬기장 조성사업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한국 부정기항공 사업협회와 삼성항공실무자가 현지를 답사, 통영시 명정도 677번지를 헬기장 부지로 선정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베트남 항공, 하노이-서울 노선 취항

베트남 항공은 하노이-서울간 항공노선에 주2회 비행편 운항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7월 3일 전했다.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마다 운행될 하노이-서울간 노선에는 에어버스 A320기가 투입된다고 베트남항공측은 밝혔다.

베트남항공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해 87%의 교통량 증가를 보인 이 노선들에 공동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비행장부지 이달내 부산시로 이양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가 이달중 국방부에서 부산시로 넘어오고 이 일대의 고도제한 조치가 완전 해제되었다.

부산시는 6월 19일 수영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방부와 부산시의 행정업무 협의회에서 6월중 매매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체결후 한달 이내에 이 일대의 고도 제한을 완전 해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항 원주공항 청사 연내 착공

원주시 등 강원도 영서지방 1백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민항 원주공항 청사 신축공사가 연내에 착공돼 내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지난 3월 서울지방항공청이 공항관리공단에 의뢰한 민항 원주공항청사 설계가 오는 20일 완료됨에 따라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끝내고 오는 10~11월중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 개청하기로 했다.

군부대 비행장 외곽 7천여㎡에 건립될 민항 원주공항청사가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원주~제주간을 1일 2~3회 여객기가 운항하게 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군비행장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고 계류장을 활주로 인접지역에 설치하며 원주~제주간 증편운항과 함께 부산 등 국내각 노선을 확대 운항할 계획이다.

최첨단 긴급구난용 경찰헬기 도입

경찰청은 6월 23일 인명구조를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전천후 고 성능 긴급구난용 헬기 2대를 도입, 취항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태리 아구스타사 제작한 "A109C-MAX"모델인 이 헬기는 8인승으로 대당 가격은 21억 5천만원. "날아다니는 앰블란스"로 불리우는 이 헬기는 기내에 응급베드와 산소호흡기, 진공흡입기 등 응급의료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기내에서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다.

시각비행에 의존하는 기존 헬기와는 달리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식별 장치와 자동조종 장치 등 첨단 항법장치가 부착돼 악천후에서도 관제탑의 통제로 자동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속도도 국내 헬기 중 가장 빠른 시속 2백72km로 서울~부산간을 1시간 10분만에 주파할 수 있어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으로 신속히 옮길 수 있다.

경찰은 이 헬기를 교통이 불편하고 낙도,오지가 많은 경남,전남 경찰청에 배치, 인명구조 임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중형 여객기 2대 도입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767-300기, 보잉 767-500기 등 최신 중형 여객기 2대를 오는 7월 13일과 16일 각각 도입했다.

아시아나는 항공기가 통관되면 무선국 검사, 보안검사 등 필요한 절차와 서비스 준비작업을 거쳐 B767-300기는 7월 15일부터 동남아 동지의 전세기 및 기타 노선의 특별기로 투입하며, B767-500기는 7월 17일부터 울산, 포항, 진주 등 지방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38대로 늘어났는데 아시아나는 올 연말까지 B767기 1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대한항공, '94년도 MD-11 우수 운영항공사 선정

대한항공은 최신형 항공기인 MD-11을 운영한 '94년도 우수 항공사로 선정돼 이 항공기 제작사인 맥도널 더글러스사로부터 7월 13일 상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90년 12월 운항이 시작된 MD-11은 현재 아메리칸에어, 스위스에어 등 세계 20개의 항공사가 1백2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항공사의 정비능력을 나타내는 국제지표인 운항정시율이 세계 평균인 97%보다 높은 99.3%를 기록, 3년 연속해서

MD-11의 우수 운영항공사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92년과 93년 MD-11, B747-400 및 A300-600기종에서 우수 항공사로 뽑혔었다.

대한항공 26일 워싱턴 취항... 뉴욕편연장 주 3회

대한항공이 오는 26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취항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뉴욕간을 운항하는 주 10편의 항공기 중 일, 수, 금요일에 서울을 출발하는 항공기를 7월 26일부터 워싱턴까지 연장운항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서울-뉴욕-워싱턴 간의 노선 면허를 받은데 이어 7월 13일에는 미국 교통부로부터도 이노선 면허를 받았다.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 『한.미간 항공협정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서울-워싱턴간을 운항중인 항공사도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규정을 적용, 대한항공의 워싱턴 취항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이 프로그램에 착안, 워싱턴 취항을 위해 올들어 미국정부측과 계속 접촉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델타항공과 공동운항 협정체결

대한항공은 국제경쟁력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미국의 3대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업무제휴 협정을 체결했다고 7월 18일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오는 9월30일부터 서울-시카고-애틀랜타 노선과 서울-포틀랜드 노선을 공동으로 운항한다.

두 항공사간에 좌석을 서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제휴로 대한항공은 서울-포틀랜드 노선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것과 같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월 업무제휴 의향서를 교환하고 분야별 제휴방안을 모색해온 두 항공사는 앞으로 상용고객 마일리지 서비스 제도를 결합하고 운항, 정비, 기내서 비스, 지상조업 등 전부문에서 상호협조하는 등 제휴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유럽의 알리탈리아, 에어프랑스, 루프트한자, 영국항공, 스위스항공, 네덜란드 항공 등과도 비슷한 제휴를 맺고 있다.

네덜란드, 콩코드기 착륙금지

프랑스의 에어 프랑스와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사소속 콩코드기들은 네덜란드 쉬폴 공항에서 소음이 심한 항공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7월 7일부터 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두항공사는 암스테르담 외곽에 있는 쉬폴공항에 대해서는 비정기노선만을 운영하고 있으나 초음속 여객기인 콩코드기들이 전세기로 동원될 때 쉬폴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항 대변인은 이와관련, "콩코드기들이 지난 5년동안 당국의 특별허가를 받아서 5차례 착륙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소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콩코드기들은 더이상 착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